

차기 광주은행장에 송종욱 부행장...49년만에 자행출신

김한 행장은 10월부터 JB금융지주 회장만 맡기로

송 부행장 26년 경력...다양한 경험·리더십 호평

광주은행의 49년 숙원인 자행출신 광주은행장이 탄생하게 됐다. 광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상국)는 28일 서울 여의도 JB금융지주 사옥에서 열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송종욱(55) 현 광주은행 부행장을 차기 광주은행 은행장 후보로 확정했다. 송 후보가 은행장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광주은행은 지난 1968년 문을 연 후 49년 동안 광주은행 출신이 단 한차례도 은행장에 오른 적이 없는 숙원을 이루게 됐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금융업 전반에 대한 다양한 근무경험과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광주

은행의 효율적인 경영관리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했다. 송 후보는 광주은행 임행 후 26년간 은행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쌓았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로 금융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인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탁월한 업무추진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영업력이 탁월한 송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지역 내 영업기반 확충과 중소기업지원 강화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송 부행장의 행장 후보 확정에는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이자 광주



김한 행장

행장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한 행장은 내년 광주은행 50주년을 맞아 조직의 안정과 내실화, 외연 확장이 이뤄졌다고 판단, 자행출신 행장이 선임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



송종욱 행장 내정자

으로 알려졌다. 김한 행장은 지난 2014년 광주은행장 취임 후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는 역할상과 도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등 외연 확장과 조직안정·내실을 다져왔다.

김 행장은 “성과를 내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 2016년에는 당기순이익 1034억원을 달성하면서 지방은행 유일 순이익 흑자를 기록했으며 8개 은행 가운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컸다. 또한 2017년 1분기 428억원, 2분기 417억원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김 행장은 특히 지역은행의 한계를 벗어나는 역할상과 혁신적 도전인 서울·인천 등에 소형 전략점포를 확대함으로써 수도권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 ‘밖에서 벌여 지역민을 위해 쓰겠다’는 평소 소신을 실현시켰다. 이를 통해 수도권의 유동자금을 지역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공급해 소통을 트게 해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 왔다. 김 행장은 송 부행장이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은행장으로 공식 선임되고

는 9월 28일 이후부터는 JB금융지주 회장직만 맡게 된다. 김 행장은 지난 2013년 7월 초대 JB금융 회장에 선임됐으며 2014년 11월부터는 JB금융에 인수된 광주은행장도 겸하고 있다. 김 회장 임기는 2019년 3월까지다. 광주은행 은행장 후보로 확정된 송 부행장은 순천출신으로 순천고,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91년 광주은행에 입행해 공보팀장, 순천지점장, 여의도지점장, 서울지점장, 서울영업본부 부행장, 리스크관리본부 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영업전략본부 겸 미래금융본부 부행장으로 재임 중이다. 한편, 송 후보는 오는 9월 27일로 예정된 광주은행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제13대 광주은행 은행장으로 공식 선임 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여성의 삶을 아름답게’

금호타이어 ‘핑크리본 캠페인’

금호타이어가 여성의 유방암 예방 및 여성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오는 10월 13일까지 ‘핑크리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 자가진단 및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2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국내에서는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진행해오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2년부터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실시하는 이번 캠페인은 타이어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구매 고객은 타이어를 구매할 땐 5000원을 기부하면 금호타이어의 캐릭터인 ‘또로’ 인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캠페인은 타이어프로(TIRE PRO) 등 금호타이어 대리점에서 실시되며, 모금된 회사와 고객들의 기부금은 연말에 한국유방건강재단에 전달되어 저소득층의 유방암 예방 운동과 유방암 치료 프로그램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입 가능한 매장 및 자세한 내용은 금호타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남화 금호타이어 경영지원담당 상무는 “또로 안전벨트를 통해 고객에게 안전벨트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차에서 심심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며 “금호타이어는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핑크리본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도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에 참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광주 아파트 관리비 크게 올랐다

공동주택관리비 물가지수 5년새 29%↑...물가 상승률 4배

아파트 거주자에게 고정비용인 관리비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가계에 주거나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공동주택관리비 물가지수는 2017년 2분기 110.87로 2012년 2분기(85.95)에 비해 29%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이 2012년 87.40에서 5년새 108.68로 24.3% 오른 것보다 높은 수치이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6.3%의 4배 수준이다. 올해도 7월 기준 광주의 공동주택관리비 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5.7%, 전월에 비해 1.6% 올라서 전체 물가 상승률(1.3%)의 4배에 달했다.

공동주택관리비는 일반 관리와 승강기 유지, 청소, 소독, 수선, 경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아파트 관리비로 전기와 난방, 수도 등 사용료는 제외된다. 실제로 광주시 광산구의 30평대 한 아파트의 7월분 관리비(사용료 제외)는 9만 8960원으로 5년전(4만3790원) 보다 배가 올랐다. 세부 항목을 보면 2012년 7월에 비하면 일반관리비는 약 20% 올랐고 청소비와 경비비는 35%와 25% 각각 상승했다. 수선유지비는 두 배나 늘었다. 이와 관련 아파트 관리 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 물가 상승은 인건비와 수선비 등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과 2011년에는 물가 상승률(2.9%)이 관리비 상승률(2.0%)보다 높았으나 이후 추세가 바뀌었고 상승 폭이 커지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 관리비 상승세와 관련 한편에서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사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4월 입주민 민원이 많이 제기돼 비리가 의심되는 전국 아파트 816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713개 단지(87.4%)에서 3435건의 비위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지난해 발행된 아파트 단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외부감사인 개선권고만 따라도 가구당 관리비가 4000여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주택가격전망심리지수 폭락

광주·전남 8월 CSI 105 한달새 12P!...소비심리는 소폭 상승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후 광주와 전남지역 주택 가격 전망 심리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전남 도시지역 60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8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14.6으로 전월대비 3.5포인트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CCSI는 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 전망,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수로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정해 100보다 크면 낙관적, 적으면 비관적으로 해석한다. 8월 중 전반적인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한 반면 광주·전남지역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5로 전월보다 12포인트가 하락했다. 전국 평균 주택 가격 전망 CSI는 99로 전월대비 16포인트 떨어졌다. 광주·전남지역 주택 가격 전망 CSI는 올해 1월 91로 시작해 3월 99, 4월 102, 5월

110, 6월 115, 7월 117까지 상승했다가 새 정부의 강도 높은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생활형편 CSI는 95로 전월과 동일했으나, 생활형편 전망 CSI는 105로 전월 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수입 전망 CSI는 104로 전월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소비지출 전망 CSI도 114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현재 경기판단 CSI는 99로 4포인트 상승한 반면 향후 경기 전망 CSI는 112로 1포인트 하락했다. 취업기회 전망 CSI는 113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금리 수준 전망 CSI도 121로 2포인트 떨어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SK텔레콤 서부Infra본부 직원이 지역의 한 중학교를 찾아 ICT 진로멘토링 특강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서부Infra본부 제공>

지역 청소년들의 멘토 ‘SKT’

찾아가는 특강·장학금 지원 5년째...중·고 82개교 진행

SK텔레콤의 찾아가는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진로멘토링 특강이 성과를 내고 있다. SK텔레콤 서부Infra본부(허근만 본부장)는 사회적 책임경영 기업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행복동행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ICT 진로멘토링 특강’이 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 서부Infra본부의 지역사회 청소년 장학금 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ICT 진로멘토링 특강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ICT 트렌드와 직업군 소개 등 ICT 직업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4년간 82개교 중·고등학교를 찾아 교육을 진행했다. 허근만 SK텔레콤 서부Infra본부 본부장은 “앞으로도 더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 교류하고 소통하며 건강한 청소년 문화 확산을 위한 변화의 시기에 앞장서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70.30 (-8.21)	금리 (국고채 3년) 1.76% (0.00)
↑ 코스닥 652.92 (+2.65)	↓ 환율 (USD) 1120.10원 (-8.10)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